



최신 설비로 최고 인쇄물 수출한다

수출업체 통한 로컬수출

1960년 3월 부산시 서구 토성동에서 문을 연 국제인쇄(주)(대표이사 정현수)는 로컬수출 방식으로 패키지, 상업인쇄물을 수출하는 부산지역 제2의 인쇄물 수출업체다.

국제인쇄의 수출품은 주로 LG전자의 전자제품, LG화학의 화학세제용품, 성광전자의 가전제품 등 국내 우수 수출업체의 상품박스, 제품설명서, 요리책 등이다.

특히 가장 큰 수출 거래선인 LG전자

와는 창업 무렵부터 약 40년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미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 인도 등 LG전자 제품이 수출되는 세계 곳곳에 국제인쇄의 인쇄물을 널리 공급하고 있다.

로컬수출은 수출업체로부터 발부 받은 로컬 L/C를 통해 작업이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수출품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방식이다. 이러한 로컬수출의 가장 큰 장점은 대금 결제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

수출일 경우에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수출업체가 져야 하지만 로컬 L/C를 받았을 경우에는 L/C 대금 미납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업체와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고 연간 작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국제인쇄는 일본으로 직접 수출한 적이 있고 지금도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가끔 상담이 들어오지만 로컬

수출을 지속 고집하고 있다. 물론 로컬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즉, 국제인쇄의 한결같은 품질유지가 LG그룹과의 40년 거래관계를 이어주는 중대한 연결고리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국제인쇄는 한치도 착오 없는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LG와의 계약에서 작업 단가 합의나 납기일 조율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계약을 쉽게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로컬수출 방식으로 국제인쇄는 지난해 339만904달러 치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최신 설비도입으로 생산성 확대

인쇄업은 생산현장에서 10년 정도는 종사해야 인쇄기장의 기술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업계에는 그만큼의 고급인력들이 많지 않다. 그나마 현재의 전문인력들은 고령인데다가 젊은이들의 진출도 원활하지 않다. 이는 인력수급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생산성 저하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인력수급과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쇄는 최신설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도 관리이사는 “현대의 인쇄업은 점차 어떠한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시되는 설비싸움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인쇄업은 수주산업이자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최신의 기반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품질의 인쇄를 실현하고 생산비와 인력을 절감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경쟁업체들과 비교,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고 발주업체를 끌어들이는 전략이며 곧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수해 크게 겪어 지금도 폭우엔 비상대기

승승장구하던 국제인쇄에도 큰 고비를 맞은 적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수

해. 1988년 여름, 부산에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다. 이때 비교적 지대가 낮은 사상구 감전동 일대 공장들은 온통 물바다가 됐으며 국제인쇄도 큰 피해를 봤다. 모든 기계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인쇄용지는 물에 젖음과 동시에 폐기물로 전락, 전량 폐기처분을 해야했다. 한쪽에서는 공장으로 범람한 물을 퍼내고 기계를 건조시켰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8톤 트럭분량의 침수된 인쇄용지를 공장 밖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 때에 대한 국제인쇄 임직원들의 증언이다. 다행히 전 직원의 헌신 같은 노력으로 3,4일 만에 정상가

4월에 부산 최초로 자동튐스기를 도입하고 1980년에 서울사무소를 개설, 사세를 확장하며 1981년 3월에는 제8회 상공의 날에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어 1986년에는 전국 품질관리 표준화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1987년에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인쇄문화진흥공로표창도 수상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최신 설비확장에 힘을 기울여 2001년 10월에는 코팅기가 부착된 최신의 6색 인쇄기를 도입했으며 2002년 7월에는 용지를 뒤집지 않고도 한번에 양면인쇄가 가능한 4색 양면인쇄기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 편집시설에서부터 제판,



국제인쇄의 수출품은 국내 우수 수출업체의 상품박스, 제품설명서, 요리책 등이다. 특히 가장 큰 수출 거래사인 LG전자와는 창업 무렵부터 약 40년간 교류를 이어왔다.



110명의 국제인쇄 임직원들은 최신 설비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로 인쇄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정문철 이사는 말한다. 사진은 정문철 이사

동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 때 쓸어 내린 가슴 때문에 국제인쇄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조를 짜서 회사에 대기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110명 전 직원 자부심으로 ‘똘똘’

국제인쇄는 1960년 창립된 이래 1974년 4월에 부산 최초로 자동 2색도 오프셋 인쇄기를, 같은 해 지기시설을 도입하는 등 일찍이 부산지역 인쇄설비 현대화에 항상 앞장섰다. 이후 1977년

소부 장비는 물론 최신형 인쇄기 8대와 각종 제책 및 후가공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정문철 이사는 “국제인쇄는 110명의 직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신설비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을 인쇄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다”며, “향후 수출과 내수 분야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조갑준 기자)